

# 원전 강독 능력 학문의 기초... 심없이 매진해야

은정희 교수 **나의 삶 나의 불교학** <글>



은정희 교수는 1939년 경북 군위 출생. 1960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역임. 김미영 교수(서울시립대), 김원명 박사(한국외대 강사) 등 다수의 제자들이 학계 및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40여년간 이어져 고려대 등산모임 인양산우회 활동은 물론 동네 동사무소 단전호출 강화까지도 거르지 않는 성실함은 부주열반(不住涅槃)의 원동력이 돼 원효 연구와 한문 경전 번역에 평생을 매진해 왔다. 역서로 <대승기신론소·별기> <금강삼매경론>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기신론 소·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사상 등이 있다. 올해 4월 28일(가칭) <알기 쉽게 풀어쓴 대승기신론> 출간을 맞아 고회 기념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어려서 짚에 다니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준 법문은 어린 내게 스런지처럼 스며들었다. 독서광이던 큰언니를 따라 책을 읽던 열살, <괴도 루팡>을 읽던 때였다. 람장이 엮인 20여개의 방을 돌아다니는 부부에서 방 하나를 묘사하기를 '욕좌가 2개, 왕과 왕비가 있었을 법한...'이라고 쓰인 그 한 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보다 책상이 더 오래 남겠다' 하는 생각에 멍했다. 정신을 추리고 바라본 창밖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햇빛이 찬란히 비추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고민은 시작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세상을 다닐까?'라는 고독과 불안감이 나는 미칠 지경이었다. 혼자만 꿈꿨으며 고민하기가 달랐을까? "래어났다면 죽지를 말던가, 죽는다면 다시 래어나지를 말던가"하며 어린 시절 나를 괴롭히던 고민은 후일 알고 보니 원효가 사복(使觀)에게 했던 말이었다.

### #부친 권유로 법학과 진학해

열살부터 생사의 고민에 진한 흥미를 지녔던 나는 중학교 진학 전 훌륭한 사람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고민을 멈췄다. 그때까지 부모님과 학교에서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들은 것을 나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린 터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공민(정치경제) 과목 선생님께서 수평글러와 토인비에 대해 들었다. 철학과나 사회학과 진학하고 싶었다. 그런 내게 아버지는 고시패스하기를 강요했고, 부친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고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법학 공부를 하는 동안 재미도 없었고 왜 다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졸업은 수석으로 했다. 부친의 기대도 컸었다. 하지만 법학에 흥미가 없던 나는, 계속해서 고시패스를 바라던 부친의 기대를 뒤로 하고 대학 졸업 후 8년 반을 집에서 식모살이했다.

받아서일까? 주위사람들은 연구에 몰두해 글자 하나하나 압박을 가하는 내 성격이 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덕분 아니겠냐는 농담을 한다. 무엇보다 네 명의 아들과 부친까지 오부자의 위치다. 까리를 하며 8년 넘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내가 그나마 고래대 철학과에 진학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부친의 반대를 무마한 모친 덕이었다.

### #<금강삼매경론> 강독에 가슴 활트여

대학 졸업한지 2년이 지났을 때다. 부친님 오산기념법회가 명동 시공관에서 열렸다. 황산덕·이항령 박사와 대각사에 주석하던 능가스님, 당시 승려였던 고은 시인 등이 법문을 했다. 틈다 매료돼 조계사정년회 활동을 하게 됐고, 당시 광덕스님 법문에 불교 공부할 해야겠다는 발심이 됐다. 이기영·이중익 박사 등 당대 석학들의 강의를 들었다. <노자> <장자>를 읽으며 가슴이 시원하다

진학했다. 시간강사만 서너 학교를 다녔다. 논문 쓸 시간도 없이 강의만으로도 바쁘지만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추) 연구원 생활을 하며 한학 경전 읽기에 몰두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지옥사당(현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 공부했던 인연으로, 민추에서 상임연구원까지 지내며 당대 최고 한학자던 우인 조규철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익혔다. 당시 민추는 어려서부터 한문만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실력자들이 많았다. 매달 시험을 봐서 장학금도 했는데 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이런 나를 두고 우인 선생은 "은정희는 피가 조조"라며 칭찬했다. 반면에 많은 한학자들 앞에서 "은정희가 1등인 것은 민추의 수치"라고 한 적도 있었다. 그때 김철호 선생 등 한학대가들이 내 고향을 물었다. 경북 군위라 대답하자, 경북에서 유명한 한학자 은진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고, 직계 증조부가 된다 하니, "당연히 민추 1등을 할만하다"고 한 기억이 난다.

관련서적을 강독한다. 3월부터는 <구사론>도 새로 읽을 예정이다. 내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거의 매일 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은 오랜 시절 함께 수확한 도반과 제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문은 손에서 놓으면 잊기 때문이다. 특히 한문은 어학이라 더 그렇다. 한번 봤던 책들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느낌이 다르다. 출간 후 15쇄를 넘긴 <대승기신론소·별기>도 아직까지 간간이 고칠 곳이 보인다. 여러 분을 대조하며 공부해 보니 원효의 <능가경> 번역은 범어 문법에 한자만 옮긴 것으로 오류가 보였다.

반면에 현장 스님의 번역은 문법까지 중국식이라 오류가 적다. 전체라 성자라고 일컫는 원효의 번역에도 오류가 있는데 하물며 나와 같은 범부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요즘 학자들을 보면 너무 쉽게 논문을 쓰고 원전을 우습게 본다. 웃을지 감사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그의 글에서 내가 <대승기신론소·별기> 등을 번역한 이후 <대승기신론>에 관한 연구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 것이다.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원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한문 이든, 범어 혹은 팔리어든 말이다. 원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다. 원전을 장악하지 못한 학문은 사상누각과 진배없다. 불교 원전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다수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문과 불교 지식에 능한 젊은 사람 여럿이 모여 짚자마자하던 얼마나 좋을까.

불교와 인연이 가깝지 않았던지 어머니 따라 해인사를 찾았다가 성철 스님에게서 책을 받으며, 또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만난 인홍 스님에게 이끌려 석남사에 갔다가 출가할 뻔도 했다. 지금껏 내가 홀로 사는 재가자로 남은 변명은, 불교가 내 삶이자 철학이었고 생활 목표였기 때문이다. 매순간 내게 원효는 화두였고 번역은 수행이었다. 지금도 나는 학문과 돌이 아닌 내 삶을 위해 심 없이 조용동시(照用同時: 본성의 비춤과 본성의 작용을 동시에 이룸)를 실천한다.

정리·조동성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 접해...법문듣고 불교공부 발심 한더위에 도시락 나눠 먹으며...모르면 두 세번 읽으며 공부

### #엄하고 철저했던 모친에게 삶 배워

내가 식모살이 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내 위로 두 언니를 모두 시집보낸 어머니는 당시 도리는 다했다며, 집안일을 놓고 자수를 했다. 내 어머니가 신주변 보살은 경북 군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예전문학교를 나온 인재다. 어머니가 작고했던 2006년 생전의 자수 작품을 모아 유작전을 열 정도로 자수에 출중했다. 원망도 많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존경한다. 군위 고향마을에 아버지 호를 딴 '남강대교'를 놓는 것도 어머니였고, 학교법인 남강학원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어머니였다. 또 가진 돈을 모두 회사에 우대 보공사 불사를 이룬 것도 어머니였다. 남들이 쉽게 못할 수많은 일을 하고도 상을 안내던 순수하신 분, 호랑이엄마도 불리던 포장포장한 분으로 돌아오면 보통 분은 아니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느꼈는데 이기영 박사로부터 <금강삼매경론>에 대해 들으니 가슴이 확 트이는 듯 했던 것을 보면 불교와 특히 원효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다. 법문을 들으니 부처님 말씀과 평소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에 환희를 느끼고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친의 반대와 모친의 중재로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 #늦깎이 대학원생, 한학만은 열심히 해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김동화 박사였다. 내게 큰 감화를 준 <금강삼매경론>을 주제로 논문을 쓰려했지만 자료가 없어 <대승기신론>으로 대신했다. 논문마감기한 한 달여를 앞두고 김동화 박사를 찾았더니 "간도 크다. 해볼 데면 해봐라"고 해서 열심히 썼다.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계속 공부해야겠다 싶어 박사과정에

### #불교 학자는 원문에 자신 있어야

올해 고회가 되지만 지금도 나는 한문 읽기를 쉬지 않는다. 이강수 교수(연세대 철학과), 신유호 명예교수(공주대), 허경일 명예교수(덕성여대) 등 40년 강독지들이 모여 <춘추씨잔>을 교재로 1982년 새로 시작했던 강독 모임은 지금도 격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화요일에는 대학원 강의를 하고, 수요일에는 <논어> 강독을 한다. 금요일에는 유식

##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 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쪽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重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을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를 가능하며 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과교수) 왕 원장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뢰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성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증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